

진리를 살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제정하신 다음 그 끝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제정하신 성찬을 앞으로도 반복하여 거행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미사는 단지 최후만찬의 외적 반복 거행 예식만은 아닙니다. 미사는 예수님께서 일생 가르치고 실천 하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완성하신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예식화한 것입니다. 곧 성찬은 그분의 가르침과 삶, 특히 수난과 부활의 기념제입니다. 따라서 성찬례 반복 명령은 넓게 보면 그분의 삶을 기념하고 재현하라는 명령도 됩니다.

이처럼 미사와 예수님의 삶은 때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긴밀히 결속되어 있고, 예수님의 삶을 등진 미사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에서의 미사는 예수님 삶의 살아있는 거울입니다. 미사를 통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올바로 기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미사에서 체득한 주님의 희생과 사랑, 자비와 용서, 친교와 나눔 등의 거룩한 삶을 일상생활에서도 실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미사 중에 화해와 평화의 인사를 나누며 희생 제사를 바쳤다고 만족하시겠습니까? 나와 가족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했다고 미사를 다 한 것입니까? 미사 후에 성당 문을 나서자마자 주님을 잊고 이웃을 못 본 척하고 사는 사람은 미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의무에 매인 이름만의 신자에 불과합니다. 미사가 예수님의 생애와 직결되어 있듯이 그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삶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미사의 핵심적 의미는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라는 빵 말씀과 “이는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라는 잔 말씀입니다.

미사와 신자생활

누구를 위하여 몸을 바치고 피를 흘린다는 말은 성서적 의미를 모르더라도 희생을 뜻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최후만찬 중에 당신 몸과 피를 바치는 예식을 제정하신 예수님은 그날 밤부터 수난에 들어가셨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서 실제로 목숨을 바치시어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온전한 바침과 비움,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마르 10,45),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요한 10,15)

진정 예수님의 일생은 미사 중에 거룩한 표지로 재현되듯이 당신 양들인 인류를 위하여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온전히 다 바치신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리스도 신앙을 상징하는 십자가는 하느님이 스스로를 내어주고 쏟는 생명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르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어디까지 실천해야 하는지도 말해 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성찬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헌신과 희생으로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 신앙인은 이웃을 돌보아주고 가없이 여기는 선한 실천, 곧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금씩 비워내고 기꺼이 십자가를 집니다.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잡지 발췌』

복	음	록	상
---	---	---	---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괜찮아, 다친데 없어?



엄마가
아끼는 자기를
장난치다
깨고 말았다.
순간 밀려오는
두려움. 당혹감에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엄마가 달려와
"아들아, 괜찮아.
다친데 없어?"
그 말에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다.

상화이야기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존브리지스(1818-1854)

1839년 작

캔버스 위 유화 121.9 X 173.2 cm

비밍엄 미술관, 영국 비밍엄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라고 전한다.

이 그림에서도 중앙의 밝은 후광과 밝은 적색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누운 부인에게 오른손을 뻗으

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주변의 인물들이(제자들과 가족들) 이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 병상의 부인과, 부인을 부축하는 여인의 표정에서 믿음과 감사의 표정이 보이며, 오른쪽의 배경에는 아기를 안은 부인과 지팡이를 의지하며 올라오고 있는 노인 및 다른 인물들이 보인다.

이는 오늘 복음의 말미에 나온,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 들었다”라는 구절을 암시하고 있다.

김은혜(캘리시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5주일: 태종 김현우 신부

◆ 교구장 동정

- 총무(육군 39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곳: 2월 4일(주일)
-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때·곳: 2월 5일(월) 15:00,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주교회의 선교사목주교위원회
 때·곳: 2월 7일(수) 10:30, CBCK

◆ 군신교단 미사 및 모임

 때·곳: 2월 8일(목) 18: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3사관학교 졸업미사

 때·곳: 2월 8일(목) 19:00, 성바실리오 성당

◆ 군중부원회 전국 총회

 때·곳: 2월 9일(금) 11:00, 자운대 성당

“군 복음회, 변함없는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